

21세기

—대학 연구도서관 및 법률도서관에 있어서의 기술적 영향—

黃 琴 淑

〈曉星女子大學校 講師〉

본고는 Betty W. Taylor, Elizabeth B. Mann, Robert J. Munro 이 세사람 공동으로 1988년에 출간된 “The Twenty-First Century : Technology's Impact on Academic Research and Law Libraries”이란 책을 읽고 이에 대한 요약과 하고자 한다.

컴퓨터가 출현한지 불과 반세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 위력은 심지어 가정에서부터 network를 통한 범세계적인 이용에 이르기 까지 매우 파급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위력을 가진 컴퓨터는 현재 도서관 시스템에 들어와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은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달에 따라 미래의 도서관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사서의 임무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 주리라 기대된다. 원저서의 조사결과에 나타나는 문항의 비율이 0.1~0.9% 정도의 오차가 발견되어, 전후비율은 정확히 조사하여 수정을 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역자주>

서 언

이 보고서의 취지는 대학 연구도서관 및 법률도서관의 미래에 있어서의 기술적 영향과 1900년대와 2000년대에 있어서 재정적인 계획에 대한 분석과 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 및 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224명의 응답자(주로 연구도서관협회의 사서, 법과대학 학장, 과학자, 도서관학과 교수, network 종사자)를 통해 150개 문항에 의해 얻어졌다.

응답자의 의견은 저자들에게 사실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현실적 전망과 예견을 제공하고 있다.

3장인 “질문지 조사결과”의 데이터에 의해 제시된 미래는 4장 “결론” 훨씬 더 보충하여 발전되어져 있다.

1. 당대의 예견 1980-87

이 장은 당대에 살고있는 우리가 미래의 도서관에 대한 예견을 1980-87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있다.

Lancaster, Drasgow, Marks는 ‘The Impact of a Paperless Society on the Research Library of the Future’에서 “예견은 확실히 어려운 작업이다. 예견자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잘 인식해야만 하

고, 예기할 수 없는 기대치 않은 변화와 사건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Drott 는 ‘Automation in Libraries : The Decade to Come (1980)’에서 “다음 10년간 도서관 자동화는 격동하는 변화로 많은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컴퓨터 하드웨어 가격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며, 특히 대용량을 갖춘 마이크로 컴퓨터로 많은 영향을 받게될 것이며, 사회 각 분야에서의 자동화 증가는 도서관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산화할 해야하는지에 대해 보다 많은 의견을 제시하게될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발달과정이 너무 빨라 추종자들이 이에 신속한 보조를 맞출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사서들은 불충분한 예산, 계속적인 정보 증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압박감등으로 미래 도서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Giuliano는 ‘A Manifesto for Librarians’에서 “도서관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아닌 비교적 정적인 형태 (ex ; 도서, 정기간행물)인 정보 수집 및 장서 조직과 보존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 즉 신속한 새로운 자료 접근인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최신성 없는 자료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Gennaro 는 ‘Libraries, Technology, and the Information Marketplace’에서 Lancaster, Giuliano, 다른 기술자 및 미래 연구자에 도전하고 있다.

“정보산업이 결코 도서관을 없앨 수는 없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즉, Gutenberg의 금속활자 발명 이후 도서관은 현격히 증가되었으며, 컴퓨터 및 관련 전자기술 또한 도서관의 량과 중요성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이미 전자 컴퓨터 기술이 새로운 종류의 전자도서관 개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한다.

Kenney 또한 ‘Library Information Delivery Systems : Past, Present, and Future’에서 “중요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종종 database의 전자식 탐색에 대한 부산물은 있을 것이며 탐색 결과가 원한다면 인쇄물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사서는 정보전문가가 될 것이며 게다가 도서관 안 밖에서 정보전문가에게는 요구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숙련된 기술이 더 증가될 것이다. 즉 많은 정보전문가가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Thompson 는 ‘The End of Libraries’에서는 “한정된 장서규모, 분류체계의 부적절성, 도서 자체의 특성, 사서의 자질등이 도서관 소멸을 유도할지도 모른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Butler는 ‘Electronic Publishing and Its Impact on Libraries : A Literature Review’에서는 “문헌의 전자적 출판이 매일 매일 증가할 것이며, 전자기술이 가까운 시일내에 도서관의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Gennaro도 또한 ‘Shifting Gears :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cademic Library’에서 “정보기술이 이미 출판과 도서관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변화는 미래에도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러한 기술이 도서와 도서관을 없애게 할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이용자는 도서관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사서는 지금 이용가능한 자료와 기술로 그러한 요구에 대처해야만 한다.

또한 사서의 업무도 장서수집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중요한 변신을 통해 도서관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Hendrick 은 ‘The University Library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서 “도서관은 다음 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그 중요성이 더 증가될 것이다. 도서관이 사라질 것이라는 일부 숙명가의 예견은 잘못됐다.

지식이 계속적으로 증가될수록 그것을 수집하고, 구분하고, 분류하고, 저장하고, 검색하며, 혼란에 빠져있는 이용자에게 조언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전문가가 더 증가할 것이다.

도서관은 21세기에도 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도서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

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지식을 기록하고 변형하는 매개물이 더 증가 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Briscoe의 기타 다른사람들은 ‘Ashurbanipal’s Enduring Archetype : Thoughts on the Library’s Role in the Future’에서 “정보산업의 성장, 가정 및 사무실에서의 컴퓨터 터미널 증가, 출판에 있어 인쇄물 형태에서 전자 미디어에로의 점차적인 변화 등은 사회기관으로서의 도서관 본질과 사서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Battin은 학술정보센터(Scholarly Information Center)에 대한 개념 정립 업무를 부과 받았는데, ‘Columbia U’s Head Librarian is Now Managing Academic computing, Too’ 논문에서 그녀는 “학자는 도서와 잡지에 실린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으며, 그 다음 전자적으로 축적된 정보를 위해 컴퓨터 센터에 갈 필요도 못느끼며 후에 그들이 수집한 정보를 조직하기 위해 그들 자신만의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필요를 느낄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Lancaster는 ‘The Paperless Society Revisited’에서 그의 초기 예견들을 다음과 같이 재평가 하고 있다.

“대체로 나는 10년 전에 예견한 것보다 혁신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고 있고, 전자 메일도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점점 더 확산시키고 있다. 비디오텍스 기법도 다양한 전자 정보원을 우리의 가정에 직접적으로 파급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자출판물이 인쇄물 형태의 자료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전자적 부산물이 단순히 인쇄물 형태의 도서들을 전자적으로 보여 줄 뿐이다.”

Naisbitt의 ‘Megatrends : Ten New Directions Transforming Our Lives’에서는 “정보사회는 단순히 지적인 축약이 아닌 경제적 실체이다.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 기술에 있어 혁신은 ‘정보 흐름’의 붕괴를 통해 변화의 국면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새로운 정보기술은 먼저 기존의 산업적인 임무를 응용해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활동, 과정, 부산물을 탄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 시대의 기술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것은 고도의 기술, 고도의 기법의 본질에 따라 성공할 것이며 또한 실패할 것이다.”

Naisbitt는 또한 “우리는 정보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직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정보가 정보화 사회에 있어 자원이 될 수는 없다. 정보기술은 정보 폭발의 혼란에 있어 질서를 가져오고 유용하지 않은 자료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만일 이용자가 정보 활용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거기에 돈을 지불할 것이다. 그래서 전 정보사회의 관심이 공급에서 선정으로 변해야만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래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예견하는 사람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예견의 중요성은 만일 그것이 면밀히 검토된 것이라면,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예견들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시야와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

2. 문제에 대한 소개

미래의 도서관은 오늘날의 도서관과 다를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술이 online 시스템과 floppy disk, 심지어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ex ; 광학, 디지털, 비디오, 콤팩트, 레이저 디스크등)로 신속하게 정보 전송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과 사서는 다음 여러 문제에 대해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정보출판에 있어 기술적 영향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 도서관 장서와 자동화된 정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 전자정보가 교수, 학생, 그외 도서관 이용자에게 어떻게 이용되어질 것인지?
- 인사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 컴퓨터 장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SPSSX(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사용하였다.

다음 <표1>은 발송한 질문지 수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3. 질문지 조사결과

3.1 목적 및 방법

이 연구는 Florida 대학의 법률 정보 센터에 근무하는 조사자에 의해 수행되어 졌다.

우편 조사에 의한, 이 연구과제는 대학 연구도서관과 법률도서관에 있어 기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되어 졌다.

The Communication Research Center, College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 University of Florida에서 질문지를 작성, 수정, 예비조사, 관리 및 데이터 분석을 도왔으며, 모든 데이터 분석은

<표1> 그룹별 발송한 질문지 수와 응답률

구 분	발송수	응답수	응답률
법률도서관장	190	75	39.5%
대학학장	175	44	25.5%
과 학 자	165	33	20.0%
연구도서관장	120	44	36.7%
도서관학과교수	35	18	51.4%
출판사	30	4	10.0%
네트웍종사자	25	8	32.0%
계	740	224	30.3%

3.2 조사결과

정보출판에 있어 기술적 영향

Q1. 인쇄물 형태의 도서출판은 전산화된 정보 출판물 및 다양한 형태의 매개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증가될 것이다.

코멘트 :

A	B	C
어느만큼 강력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 동의하십니까?	그런 결과가 어느만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언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강력하게 동의한다. (33.2%)	매우 바람직하다. (26.5%)	1990년 까지 (8.1%)
동의한다. (56.2%)	바람직하다. (49.3%)	2000년 까지 (31.5%)
모르겠다. (3.6%)	모르겠다. (15.5%)	2000년 이후 (60.4%)
동의하지 않음. (6.3%)	바람직못하다. (8.7%)	
강력하게 동의 않음. (0.4%)	매우 바람직못함. (0.0%)	

Q2. 미래 도서관의 도서관서는 더 많은 정보가 전산화된 다양한 매개물 형태로 이용가능해 지기 때문에 그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12.2%)	매우 바람직하다. (13.6%)	1990년 까지 (14.5%)
	동의한다. (44.6%)	바람직하다. (44.6%)	2000년 까지 (29.0%)
	모르겠다. (5.0%)	모르겠다. (16.0%)	2000년 이후 (43.0%)
	동의하지 않음. (34.7%)	바람직못하다. (23.5%)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3.5%)
	강력하게 동의 않음. (3.5%)	매우 바람직못함. (2.3%)	
Q3.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산화된 형태나 컴퓨터로 생산해낸 형태의 정보를 살것이며 도서관에서는 덜 빌려 볼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7.3%)	매우 바람직하다. (6.1%)	1990년 까지 (22.0%)
	동의한다. (50.5%)	바람직하다. (37.1%)	2000년 까지 (32.5%)
	모르겠다. (10.5%)	모르겠다. (27.7%)	2000년 이후 (29.8%)
	동의하지 않음. (29.5%)	바람직못하다. (26.3%)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5.7%)
	강력하게 동의 않음. (2.2%)	매우 바람직못함. (2.8%)	
Q4. 미래의 봉사에 있어 도서관들은 이용자가 비도서 형태의 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 우수한 지도를 받게끔 제공한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6.8%)	매우 바람직하다. (6.3%)	1990년 까지 (10.5%)
	동의한다. (27.9%)	바람직하다. (27.4%)	2000년 까지 (28.2%)
	모르겠다. (11.7%)	모르겠다. (30.8%)	2000년 이후 (39.8%)
	동의하지 않음. (47.3%)	바람직못하다. (30.8%)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1.5%)
	강력하게 동의 않음. (6.3%)	매우 바람직못함. (4.7%)	
Q5.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가 컴퓨터에 의거하거나 컴퓨터로 생산되는 기술 형태로 대체될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28.2%)	매우 바람직하다. (32.1%)	1990년 까지 (18.2%)
	동의한다. (48.2%)	바람직하다. (43.3%)	2000년 까지 (46.0%)
	모르겠다. (6.8%)	모르겠다. (12.0%)	2000년 이후 (28.3%)
	동의하지 않음. (15.9%)	바람직못하다. (12.1%)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7.5%)
	강력하게 동의 않음. (0.9%)	매우 바람직못함. (0.5%)	

Q6. 인쇄물 형태로 출판되는 자료가 없을 경우 오직 컴퓨터 스크린으로만 볼 수 있는 자동화된 정보가 읽기 쉬운 형태의 자료로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질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14.5%)	매우 바람직하다. (9.8%)	1990년 까지 (24.5%)
동의한다. (61.1%)	바람직하다. (50.9%)	2000년 까지 (39.1%)
모르겠다. (5.0%)	모르겠다. (20.1%)	2000년 이후 (28.6%)
동의하지않음. (14.9%)	바람직못하다. (14.5%)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7.8%)
강력하게 동의않음. (4.5%)	매우 바람직못함. (4.7%)	

Q7. 대부분의 이용자가 onlin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online정보에 비용이 부과되어 질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9.9%)	매우 바람직하다. (48.6%)	1990년 까지 (23.2%)
동의한다. (39.6%)	바람직하다. (40.2%)	2000년 까지 (34.0%)
모르겠다. (16.7%)	모르겠다. (7.5%)	2000년 이후 (30.9%)
동의하지않음. (28.8%)	바람직못하다. (2.8%)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1.9%)
강력하게 동의않음. (5.0%)	매우 바람직못함. (0.9%)	

Q8. online 공동목록 이용은 문헌 전송 요구를 현저하게 증가시킬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32.0%)	매우 바람직하다. (24.4%)	1990년 까지 (62.7%)
동의한다. (49.0%)	바람직하다. (58.2%)	2000년 까지 (24.9%)
모르겠다. (11.3%)	모르겠다. (14.6%)	2000년 이후 (9.3%)
동의하지않음. (7.7%)	바람직못하다. (2.3%)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3.1%)
강력하게 동의않음. (0.0%)	매우 바람직못함. (0.5%)	

Q9. 미래에 있어 고도의 단말기, 소프트웨어, 혹은 기타 다른 컴퓨터 기술이 정보에 대한 적절한 DB를 위해 질의를 분석하고 전달하는데 이용되어질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27.5%)	매우 바람직하다. (33.3%)	1990년 까지 (33.0%)
동의한다. (59.0%)	바람직하다. (54.0%)	2000년 까지 (37.4%)
모르겠다. (9.8%)	모르겠다. (9.5%)	2000년 이후 (26.1%)
동의하지않음. (3.2%)	바람직못하다. (2.3%)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3.5%)
강력하게 동의않음. (0.5%)	매우 바람직못함. (0.9%)	

Q10. 배포된 DB(ex : 자체 computer에 입수된 magnetic tapes)는 원거리 online 정보원으로 대체되어 질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16.9%)	매우 바람직하다.	(25.0%)	1990년 까지	(30.8%)
	동의한다.	(41.6%)	바람직하다.	(39.4%)	2000년 까지	(39.6%)
	모르겠다.	(21.4%)	모르겠다.	(23.1%)	2000년 이후	(20.7%)
	동의하지않음.	(18.7%)	바람직못하다.	(10.6%)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8.9%)
	강력하게 동의않음.	(1.4%)	매우 바람직못함.	(1.9%)		
Q11. 마이크로 컴퓨터와 연결된 디스크(콤팩트, 디지털, 광학레이저, 비디오)기술은 전화선으로 연결된 DB 이용보다 더 탁월한 정보검색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33.2%)	매우 바람직하다.	(40.4%)	1990년 까지	(34.2%)
	동의한다.	(43.8%)	바람직하다.	(42.3%)	2000년 까지	(43.0%)
	모르겠다.	(14.7%)	모르겠다.	(14.9%)	2000년 이후	(18.1%)
	동의하지않음.	(8.3%)	바람직못하다.	(2.4%)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4.7%)
	강력하게 동의않음.	(0.0%)	매우 바람직못함.	(0.0%)		
Q12. 2000년 까지 디스크(콤팩트, 디지털, 광학 레이저, 비디오)는 다음 범위까지 인쇄물 형태 정보를 대체할 것이다.	25%이하	(49.8%)	매우 바람직하다.	(21.1%)		
	26%-50%	(39.7%)	바람직하다.	(53.1%)		
	51%-75%	(9.1%)	모르겠다.	(21.5%)		
	76%-90%	(1.4%)	바람직못하다.	(4.3%)		
	91%-100%	(0.0%)	매우 바람직못함.	(0.0%)		
Q13. 상호작용 TV, 유선방송, Viewtron과 같은 online시스템, videotex시스템이 정보원으로서 도서관을 대체할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0.0%)	매우 바람직하다.	(0.5%)	1990년 까지	(1.8%)
	동의한다.	(7.7%)	바람직하다.	(3.9%)	2000년 까지	(10.3%)
	모르겠다.	(10.9%)	모르겠다.	(22.6%)	2000년 이후	(25.9%)
	동의하지않음.	(62.3%)	바람직못하다.	(54.9%)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62.0%)
	강력하게 동의않음.	(19.1%)	매우 바람직못함.	(18.1%)		
Q14. 기타 다른 기술들이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더 빠르게,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되어 질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16.3%)	매우 바람직하다.	(28.3%)	1990년 까지	(5.0%)
	동의한다.	(65.1%)	바람직하다.	(56.1%)	2000년 까지	(27.9%)
	모르겠다.	(15.3%)	모르겠다.	(14.6%)	2000년 이후	(65.9%)
	동의하지않음.	(1.9%)	바람직못하다.			

Q14. 기타 다른 기술들이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더 빠르게,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되어 질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않음. (1.4%)	매우 바람직못함. (0.0%)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2%)
Q15. 2000년 까지 자동화된 도서관 기술들이 주로 다음에 의해 특징되어 질 것이다.	A. PC나 터미날에 의한 Network (11.4%)	B. LEXIS와 WESTLAW와 같은 全文 DB이용 (5.7%)	C. 비디오 디스크 기술 (1.4%)
	D. 레이저 디스크 기술 (5.2%)	E. 위에 것들을 결합한 기술 (76.3%)	F. 기타 다른 기술 (0.0%)
Q16. 1990년 이후에 도서관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리라 생각되는가?	A. 일반 정보 자원으로서 기존의 역할 (8.2%)	B. 컴퓨터를 통한 정보 안내로서 새로운 역할 (3.7%)	C. A, B를 결합한 역할 (88.1%)
	D. 아무 역할도 없다. (0.0%)		

도서관 장서 및 자동화된 정보

Q17. 증가된 자동화된 정보는 도서관 hard copy 수서 증가율을 낮출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10.5%)	매우 바람직하다. (12.0%)	1990년 까지 (42.3%)
	동의한다. (64.5%)	바람직하다. (52.4%)	2000년 까지 (33.0%)
	모르겠다. (6.4%)	모르겠다. (20.7%)	2000년 이후 (20.6%)
	동의하지않음. (17.7%)	바람직못하다. (14.4%)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4.1%)
	강력하게 동의않음. (0.9%)	매우 바람직못함. (0.5%)	
Q18. 자동화된 정보 이용 증가로 도서관 기본 자료인 연간 인쇄물 형태 자료 수집이 하나의 copy본으로 줄어 들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6.1%)	매우 바람직하다. (5.5%)	1990년 까지 (22.8%)
	동의한다. (37.3%)	바람직하다. (34.7%)	2000년 까지 (35.4%)
	모르겠다. (17.0%)	모르겠다. (24.1%)	2000년 이후 (20.3%)
	동의하지않음. (37.2%)	바람직못하다. (33.7%)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1.5%)
	강력하게 동의않음. (2.4%)	매우 바람직못함. (2.0%)	
Q19. 도서관 기본 자료인 연간 hard copy 수집은 2000년까지 하나의 copy로 몇 % 줄겠는가?	25% 이하 (32.6%)	매우 바람직하다. (11.5%)	
	26%-50% (27.6%)	바람직하다. (51.4%)	
	51%-75% (16.6%)	모르겠다. (22.7%)	
	76%-90% (16.6%)	바람직못하다. (12.2%)	
	91%-100% (6.6%)	매우 바람직못함. (2.2%)	

Q20. 도서관 기본 자료인 hard copy는 2000년대까지 하나의 copy로 몇 % 줄겠는가?	25% 이하	(44.2%)	매우 바람직하다.	(13.0%)
	26%-50%	(25.4%)	바람직하다.	(53.1%)
	51%-75%	(15.5%)	모르겠다.	(22.1%)
	76%-90%	(9.4%)	바람직못하다.	(10.7%)
	91%-100%	(5.5%)	매우 바람직못함.	(1.1%)

예 산

Q21. 자동화된 정보 예산에 대한 정책은 누구에 의해 수립될 것인가?	A. 사서	(23.3%)	1990년 까지	(80.6%)
	B. 학장	(3.8%)	2000년 까지	(14.1%)
	C. 교수위원회	(4.8%)	2000년 이후	(5.3%)
	D. 모두 다	(68.1%)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0.0%)

Q22. 자동화된 정보 예산은 사서에 의해 관리 되어질 것이다.	A. 예	(89.2%)	1999년 까지	(78.8%)
	B. 아니오	(2.4%)	2000년 까지	(15.8%)
	C. 만일 없으면 누구에 의해	(8.4%)	2000년 이후	(4.8%)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0.6%)

Q23. 자동화된 정보 예산은 도서관 자료와 제본 예산으로 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질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8.8%)	매우 바람직하다.	(9.3%)	1990년 까지	(54.3%)
	동의한다.	(27.9%)	바람직하다.	(22.0%)	2000년 까지	(12.8%)
	모르겠다.	(7.1%)	모르겠다.	(16.0%)	2000년 이후	(6.1%)
	동의하지않음.	(46.0%)	바람직못하다.	(41.0%)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6.8%)
	강력하게 동의않음.	(10.2%)	매우 바람직못함.	(11.7%)		

Q24. 기관의 재정 담당자는 자동화된 정보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할당을 계속 할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15.0%)	매우 바람직하다.	(23.7%)	1990년 까지	(68.6%)
	동의한다.	(71.0%)	바람직하다.	(65.7%)	2000년 까지	(24.0%)
	모르겠다.	(9.4%)	모르겠다.	(9.6%)	2000년 이후	(6.3%)
	동의하지않음.	(3.7%)	바람직못하다.	(0.5%)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1%)
	강력하게 동의않음.	(0.9%)	매우 바람직못함.	(0.5%)		

Q25. 1990년대와 그 이후에 자동화된 정보 예산과 도서관 예산과 비교해서, 자동화된 정보 예산은 어떻게 될 것 같나?	A. 더 줄어 들것이다.	(36.9%)
	B. 같을 것이다.	(17.5%)
	C. 더 많아 질것이다.	(45.6%)

Q26. 도서수집정책 변화에 비취볼때 신축 도서관 및 부가물을 위한 자금 확보에 있어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느냐?	A. 예 (56.7%) B. 아니오 (24.0%) C. 모르겠다. (19.3%)
Q27. 연간 재정 할당이 줄어들면 자동화된 정보에 대한 예산은?	A. 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46.6%) B. 증가되어야 한다. (28.3%) C. 감소되어야 한다. (25.1%)
Q28. 연간 예산이 격감되면 어떤 자료 형태들이 먼저 격감되거나 폐기될 것인가?	A. 정보가 DB로 이용가능 할때 hard copy (63.7%) B. hard copy로 이용가능 할때 정보시스템 (23.5%) C. 기타 다른 자료 (12.8%)

자동화된 정보 이용에 대한 지불

I. 교수

Q29. 교수들의 자동화된 정보이용에 대한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A. 도서관 (16.0%) B. 대학 혹은 학과 (22.6%) C. 교수 (2.8%) D. 모두 다 (58.6%)
Q30. 교수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정보 이용, 하드웨어, 서비스 량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규정이 고안되어 질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14.8%) 매우 바람직하다. (24.4%) 1990년 까지 (69.3%) 동의한다. (49.0%) 바람직하다. (43.3%) 2000년 까지 (14.5%) 모르겠다. (17.1%) (15.4%) 2000년 이후 (3.5%) 동의하지않음. (16.7%) 바람직못하다. (3.5%) 강력하게 동의않음. (2.4%)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2.7%) (3.5%)
Q31. 교수들은 미리 정해진 제한된 량을 초과할 경우 online정보 이용에 대해 약간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17.1%) 매우 바람직하다. (19.0%) 1990년 까지 (75.3%) 동의한다. (54.4%) 바람직하다. (40.5%) 2000년 까지 (10.3%) 모르겠다. (12.9%) 모르겠다. (15.6%) 2000년 이후 (3.5%) 동의하지않음. (14.7%) 바람직못하다. (3.5%) 강력하게 동의않음. (0.9%)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0.9%) (3.5%)

II. 학생

Q32. 학생들은 정보검색서비스에 대한 기본 비용을 매이용마다 지불할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3.8%)	매우 바람직하다. (2.5%)	1990년 까지 (49.7%)
동의한다. (24.6%)	바람직하다. (14.3%)	2000년 까지 (11.0%)
모르겠다. (17.6%)	모르겠다. (14.7%)	2000년 이후 (8.3%)
동의하지않음. (45.0%)	바람직못하다. (52.2%)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31.0%)
강력하게 동의않음. (9.0%)	매우 바람직못함. (16.3%)	

Q33. 1990년 까지 대부분의 연구 대학, 법대 학생의 수업료가 도서관에서의 자동화된 정보 이용, 워드 프로세스, 기타 컴퓨터 관련 비용으로 채워질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8.2%)	매우 바람직하다. (17.2%)
동의한다. (43.4%)	바람직하다. (52.5%)
모르겠다. (16.4%)	모르겠다. (14.2%)
동의하지않음. (28.3%)	바람직못하다. (12.7%)
강력하게 동의않음. (3.7%)	매우 바람직못함. (3.4%)

Q34. 도서관은 무료일 경우 학생들에게 제한된 자동화된 정보 이용량을 제공할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22.1%)	매우 바람직하다. (34.5%)	1990년 까지 (85.1%)
동의한다. (62.2%)	바람직하다. (52.7%)	2000년 까지 (5.2%)
모르겠다. (7.8%)	모르겠다. (5.9%)	2000년 이후 (4.5%)
동의하지않음. (6.5%)	바람직못하다. (4.9%)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2%)
강력하게 동의않음. (1.4%)	매우 바람직못함. (2.0%)	

III. 기타 다른 도서관 이용자

Q35. 도서관은 정보가 오직 online으로 이용가능할 경우 모든이에게 자동화된 정보 이용에 대해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3.7%)	매우 바람직하다. (9.4%)	1990년 까지 (47.1%)
동의한다. (17.5%)	바람직하다. (27.7%)	2000년 까지 (13.7%)
모르겠다. (16.6%)	모르겠다. (21.3%)	2000년 이후 (8.5%)
동의하지않음. (50.2%)	바람직못하다. (32.7%)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30.7%)
강력하게 동의않음. (12.0%)	매우 바람직못함. (8.9%)	

Q36.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정보 이용을 위해 컴퓨터나 터미널을 공급할 것이며, 동전이나 카드로 운용되는 기계나 합법적인 신청을 통해 비용을 비축해 둘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7.8%)	매우 바람직하다. (8.8%)	1990년 까지 (60.8%)
	동의한다. (51.8%)	바람직하다. (43.1%)	2000년 까지 (19.9%)
	모르겠다. (21.1%)	모르겠다. (23.6%)	2000년 이후 (5.8%)
	동의하지않음. (17.0%)	바람직못하다. (21.1%)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3.5%)
	강력하게 동의않음. (2.3%)	매우 바람직못함. (3.4%)	

인 사

Q37. 미래에는 도서관 장서 형태와 증가된 자동화 변화로 도서관 직원 수와 조직이 변화 될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19.0%)	매우 바람직하다. (19.2%)	1990년 까지 (65.6%)
	동의한다. (70.1%)	바람직하다. (66.8%)	2000년 까지 (29.0%)
	모르겠다. (6.3%)	모르겠다. (11.6%)	2000년 이후 (4.3%)
	동의하지않음. (4.1%)	바람직못하다. (1.9%)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1%)
	강력하게 동의않음. (0.5%)	매우 바람직못함. (0.5%)	
Q38. 행정 사서의 수는?	A. 증가 될 것이다. (24.9%)	1990년 까지 (61.7%)	
	B. 감소 할 것이다. (16.7%)	2000년 까지 (33.3%)	
	C. 변화지 않고 그대로 (58.4%)	2000년 이후 (5.0%)	
Q39. 공공 서비스 사서 수는?	A. 증가 될 것이다. (75.7%)	1990년 까지 (70.7%)	
	B. 감소 할 것이다. (9.5%)	2000년 까지 (27.6%)	
	C. 변화지 않고 그대로 (14.8%)	2000년 이후 (1.7%)	
Q40. 기술 서비스 사서 수는?	A. 증가 될 것이다. (22.6%)	1990년 까지 (64.0%)	
	B. 감소 할 것이다. (59.0%)	2000년 까지 (32.0%)	
	C. 변화지 않고 그대로 (18.4%)	2000년 이후 (4.0%)	
Q41. 보조 직원 수는?	A. 증가 될 것이다. (33.0%)	1990년 까지 (65.0%)	
	B. 감소 할 것이다. (37.8%)	2000년 까지 (30.2%)	
	C. 변화지 않고 그대로 (29.2%)	2000년 이후 (4.7%)	

Q42. 도서관에서 정보학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수는?	A. 증가 될 것이다. (80.3%)	1990년 까지	(68.1%)
	B. 감소할 것이다. (7.3%)	2000년 까지	(29.9%)
	C. 변화지 않고 그대로 (12.4%)	2000년 이후	(2.1%)

Q43. 도서관학 전공없이 오직 전자계산학 교육을 받은 직원은 컴퓨터 전공한 사람과 상응한 임금을 받아야만 한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7.3%)	매우 바람직하다. (8.4%)	1990년 까지 (71.9%)
	동의한다. (53.2%)	바람직하다. (51.8%)	2000년 까지 (18.3%)
	모르겠다. (19.0%)	모르겠다. (22.0%)	2000년 이후 (4.2%)
	동의하지않음. (19.0%)	바람직못하다. (16.2%)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6%)
	강력하게 동의않음. (1.5%)	매우 바람직못함. (1.6%)	

Q44. 도서관에서는 자동화 증가와 변화의 결과로 도서관 직원을 훈련시키고 재교육시키기 위한 자금을 할당해야 할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22.1%)	매우 바람직하다. (37.5%)	1990년 까지 (77.1%)
	동의한다. (59.9%)	바람직하다. (54.3%)	2000년 까지 (16.2%)
	모르겠다. (11.6%)	모르겠다. (6.3%)	2000년 이후 (2.2%)
	동의하지않음. (5.5%)	바람직못하다. (1.4%)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4.5%)
	강력하게 동의않음. (0.9%)	매우 바람직못함. (0.5%)	

컴퓨터 장비

Q45. 1990년대 까지 컴퓨터 운영(예산, 인사, 장비를 포함한)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A. 대학 혹은 도서관 학과	(22.4%)
	B. 대학 혹은 학과	(6.7%)
	C. 컴퓨터 센터	(7.1%)
	D. 본관도서관	(10.5%)
	E. 모두 다	(52.8%)
	F. 기타	(0.5%)

Q46. 개개 교수들은 정보이용 및 워드프로세스를 위해 컴퓨터나 터미날을 소유하거나 공급 받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31.1%)	매우 바람직하다. (43.9%)	1990년 까지 (59.1%)
	동의한다. (60.8%)	바람직하다. (48.1%)	2000년 까지 (30.3%)
	모르겠다. (2.6%)	모르겠다. (4.7%)	2000년 이후 (9.1%)
	동의하지않음. (5.0%)	바람직못하다.	

	강력하게 동의않음. (0.5%)	동의함 (2.8%)	매우 바람직못함. (0.5%)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5%)
Q47. 대학에 등록해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PC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21.1%)	동의한다. (61.4%)	매우 바람직하다. (33.2%)	1990년 까지 (48.2%)
	모르겠다. (6.3%)	모르겠다. (7.5%)	바람직하다. (56.4%)	2000년 까지 (39.6%)
	동의하지않음. (10.8%)	바람직못하다. (10.2%)	매우 바람직못함. (0.5%)	2000년 이후 (2.0%)
	강력하게 동의함 (0.4%)	매우 바람직하다. (27.7%)	매우 바람직하다. (27.7%)	1990년 까지 (52.6%)
Q48. PC와 터미날을 가지고 있지않은 학생은 개인적 및 실험실에서의 정보이용 및 워드프로세스를 위해 컴퓨터와 터미날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동의한다. (51.6%)	바람직하다. (51.6%)	바람직하다. (51.6%)	2000년 까지 (28.9%)
	모르겠다. (15.4%)	모르겠다. (14.1%)	바람직못하다. (13.3%)	2000년 이후 (13.3%)
	동의하지않음. (15.8%)	강력하게 동의함 (0.9%)	매우 바람직못함. (0.5%)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2%)
	강력하게 동의함 (4.1%)	매우 바람직하다. (10.3%)	매우 바람직하다. (10.3%)	1990년 까지 (4.1%)
Q49. 1990년대 까지 개개 학생들은 PC 구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동의한다. (18.3%)	바람직하다. (27.5%)	바람직하다. (27.5%)	2000년 까지 (18.3%)
	모르겠다. (22.4%)	모르겠다. (26.0%)	바람직못하다. (4.4%)	2000년 이후 (22.4%)
	동의하지않음. (48.4%)	강력하게 동의함 (6.4%)	매우 바람직못함. (4.4%)	1990년 까지 (6.4%)
	강력하게 동의함 (6.4%)	매우 바람직하다. (31.8%)	매우 바람직하다. (31.8%)	2000년 까지 (6.4%)

4. 결 론

질문에 대한 6가지 부분은 51개의 질문이 2-3개로 구성되어 일부는 이론적으로, 일부는 기술적으로, 일부는 관리적으로 조사되어 졌다.

그럼 이러한 조사결과를 2000년대 까지 혹은 2000년대 이후의 도서관 시나리오를 통해 결론을 유

도해 보겠다.

2000년대 까지의 대학 도서관에 대한 시나리오

이는 학문 연구도서관장, 도서관학 교수, network 종사자, 과학자, 출판사의 예견을 근거로 기술, 도서관 정책, 경제성, 공공 정책 측면에서 살펴 보겠다.

〈기술〉

- 도서는 계속해서 출판되어 질 것이다.
- 책자형태로 출판되는 정보는 적을 것이다.
- 다양한 매개물 형태로 이용가능한 정보는 더 많아 질 것이다.
- 전자 형태로 이용가능한 정보는 더 많아 질 것이다.
- 마이크로폼이 전자 형태의 정보로 대체될 것이다.
- 오직 컴퓨터로 이용가능한 정보가 채택되어 질 것이다.
- 컴퓨터 기술은 전자정보 이용을 개선시킬 것이다.
- 배포된 DB는 online 전자정보로 대체되어 질 것이다.
- 디스크 기술은 정보검색 용량을 보다 우수하게 online 시스템에 제공할 것이다.
- 디스크 형태는 hard copy를 25% 이하로 대체시킬 것이다.
- 상호작용 TV, 유선방송, 비디오 텍스트 시스템은 정보자원으로 도서관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 보다 새로운 기술은 더 신속하고 값싸게 전자정보 이용을 제공할 것이다.
- 자동화된 도서관 기술은 PC, online 정보시스템, 디스크의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질 것이다.

〈도서관 정책〉

- 도서 장서는 전자정보가 더 많이 이용가능하게 됨과 같이 그 규모면에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 상호대차가 전자정보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 도서관 서비스는 전자정보 이용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전통적 형태와 혼합되어 제공되어 질 것이다.
- online 목록 이용은 문헌 전송 요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 학생들 수업료가 정보이용 비용과 컴퓨터 관련 비용으로 충당되어 질 수도 혹은 충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 도서관의 역할이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역할과 결합하여 hard copy 자료의 일반 정보 자원으로서 계속 유지되어 질 것이다.
- 증가된 자동화된 정보가 수서 증가 비율을 낮출 것이다.
- 전자정보 증가가 하나의 hard copy본 수서를 필연적으로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 하나의 hard copy본은 연간 수서를 25% 이하로 줄어든게 할 것이다.
- 하나의 copy본은 hard copy 장서를 25% 이하로 줄어든게 할 것이다.
- 도서관 장서는, 현재와 같이 다양한 자료(ex ; hard copy, disk, software)로 구성되어 질 것이다.
- 격감된 1년 예산에서는 hard copy 자료가 먼저 줄어들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행정 사서의 수는 변화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 공공 서비스 사서 수는 증가될 것이다.
- 기술 서비스 사서 수는 감소되어 질 것이다.
- 보조 직원 수는 증가될 것이다.
- 도서관의 정보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한 전문가 수가 증가될 것이다.
- 사서는 재교육 및 훈련으로 할당된 자금 혜택을 받게될 것이다.
- 1990년대 까지 어느 대학 부서에서 컴퓨터 운영 예산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될런지는 명확하지 않다.

〈경제성〉

- online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 질 것 같지는 않다.
- 사서는 전자정보 예산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 사서가 전자정보 예산을 관리하는 행정가가 될 것이다.
- 전자정보 예산이 도서관 자료 예산에 합쳐져질 것이다.
- 기관의 재정 담당자는 전자정보 이용에 대한 자금을 할당하게 될 것이다.

- 사서들은 도서관 자료 예산과 비교해서 전자정보 미래 예산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비 사서들은 전자정보 예산이 더 많아 질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 도서관 건립 자금은 전자정보원이 증가하고 hard copy본이 줄어들므로서 자금확보에 대한 명분을 정당화하기가 더 어려워 졌다.
- 격감된 1년 예산에서 자동화된 정보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 교수들의 자동화된 정보이용에 대한 비용은 도서관, 대학, 학과, 그리고 교수들 자금으로 부담되어 질것이다.
- 교수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질 정보이용, hardware, 서비스 량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이 설정되어 질것이다.
- 교수들은 자동화된 정보이용의 적절 량을 초과할 경우 그에 대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 학생들은 정보이용에 대한 매 사용료를 지불할 지도, 혹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 정보이용 및 컴퓨터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학생들 수업료가 기관마다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되어 질것이다.
-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질 제한된 정보이용 량이 마련되어 질것이다.

<공공 정책>

- 이용자들은 정보자료를 오직 컴퓨터 형태로 이용가능할 수 밖에 없을 경우 이를 받아 들일 것이다.
- 도서관들은 비록 정보가 전자 형태로만 이용가능할지라도, 이용자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지는 않는다.
-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기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 각 교수들은 정보이용 및 워드프로세스를 위해 컴퓨터를 소유하거나 공급받게 될 것이다.
-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록 기간중에 개인용 컴퓨터를 소유할 것이다.

- 컴퓨터를 갖지않은 학생들은 컴퓨터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 학생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가질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도서관에 대한 시나리오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과 개인적 논평이 1986년-2000년 사이와 그 다음 확실치는 않지만 2000년 이후의 미래 도서관에 대한 예견을 제시하고 있다.

분명히 응답자는 5-10년 사이를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보통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후를 예견하는 일은 어느정도 모험적이고 위험한 일이 되겠다.

도서관 미래에 대한 관심은 매우 흥미롭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잘 유도되어 저야만 한다.

다음은 2000년대 이후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들이다.

- 1) 응답자의 대부분이 전산화된 형태의 정보출판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인쇄물 형태의 도서출판이 증가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 2) 응답자중 43.9%가 미래 도서관 도서 장서가 2000년대 이후에 정보가 전산화된 형태로 더 많아지는 만큼 줄어들 것이라 예견하고 있고, 43.5%가 이러한 현상이 2000년대 까지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 3) 응답자의 29.8%만이 2000년 이후의 기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컴퓨터로 생산된 형태의 정보를 살 것이며, 도서관에서는 덜 빌려 볼 것이라고 느꼈으며, 보다 많은 응답자(54.5%)가 이러한 현상이 21세기가 아닌 현 20세기에 발생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 4) 미래에 사서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도서 형태의 정보 검색에 있어 안내 역할만 할 것이라는 것을 응답자중 제일 많은 퍼센티지(39.8%)를 차지하고 있고, 거의 동등한 수(38.7%)가 2000년대 이전에 이러한 것이 발생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 5) 응답자의 대부분이 상호작용 TV, 유선방송,

Viewtron과 같은 online 시스템, 기타 다른 비디오텍스 시스템이 정보자원으로 도서관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견에 거부하고 있다.

6) 1990년대 그리고 그 이후 년간 도서관 자료 예산과 더불어 자동화된 정보 예산을 비교해서, 응답자들은 자동화된 예산이 더 많을 것이다(46.6%), 같을 것이다(16.5%), 더 줄어들 것이다(36.9%)라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7) 응답자의 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에 도서관은

2가지 역할, 즉 일반 정보자원으로서의 역할과 컴퓨터에 의거한 새로운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응답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강렬한 열망(물론 몇몇 예외도 있고 또 중간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에 대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2000년대 이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2000년대 이전에 많은 중요한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물안내

☎ 137-0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 (535) 4868 · 5616

성명	저자	발행연도	면수	가격
한국십진분류법 (본표·상관색인)	분류분과위원회편	1980	1,300	20,000원
한국목록규칙 (3.1판)	한국도서관협회	1990	101	4,000원(반양장)
한국도서관통계 (1991년도판)	한국도서관협회	1990	77	4,500원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사공철등편	1986	336	15,000원(반양장)
한국학자료선정목록	한국도서관협회	1986	331	18,000원